다도해의 보석 섬

⑱ 여수시 월호동 대경도

# 해양관광단지 개발 설레는 '엑스포 섬'

여수 구봉산에서 바라본 대경도 전경. 여수에서 5분 거리로 손에 닿을 듯 가까운 섬이다. 뭍과 가까운데다 남해 바다의 풍광을 접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최근 대규모 해양관광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뭍에서 5분 '섬같지 않는 섬'
## 주민 1천여명…갯장어 원산지
## "주민들에 도움 주는 개발 기대"

쉽게 닿지 않는 곳에 대한 막연한 선망과 신비로움, 섬 여행이 늘 가슴 설레는 이유다.

이런 면에서 대경도(大鏡島·2.32㎢)는 설렘이 덜한 섬이다.

뭍을 향한 그리움이 큰 걸까. 뭍과 몸을 섞고 싶지 않아서일까.

대경도는 여수 끝자락에 닿을 듯 말듯 떨어져 있다. 여수시 국동에서 800m, 15분마다 오가는 철부선(鐵浮船)에 차를 싣고 내리는 시간을 더해도 고작 5분 거리다. 대경도를 둘러싸고 있는 갯벌 한 삽 푹 떠 던지면 금방이라도 이어질 듯한 섬이다. '일상탈출'의 기분을 느끼기도 쉽지 않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운 바다'다.

그래도 섬은 섬이다.

아파트와 도심이 펼쳐지는 뭍을 등지면 탁 트인 남해 바다와 그 바다 위에 촘촘히 떠 있는 소경도, 가장도, 불무도 등 섬들이 4㎞해안도로를 따라 눈 앞에 펼쳐진다.

대경도는 주변 바다가 거울(鏡)처럼 맑다고 해 붙여진 이름으로, 인근 소경도와 구분해 대경도로 불린다. 고려시대 어느 후궁이 귀양온 뒤부터 '경도(京島)'로 불리기도 했고 섬 형상이 고래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래 경(鯨)'자를 써 '경도(鯨島)'로 불린다는 어원도 전해진다.

선착장에 내려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해상펜션'. 섬과 뭍 사이에 '생뚱맞게' 떠있는 돔형펜션이지만 샤워실과 냉장고·TV 등을 갖춰 낚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잇따른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어서인지 젊은층도 많다. 3개 마을(외동·내동·오복) 1019명의 주민들 가운데 60세 이상(327명)보다 50세 이하(498명)가 많고 35명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유치원도 있다.

섬에 태를 묻었다는 박용면 내동 통장은 "그래도 예전만 못하다"고 했다. 20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만 500명에 달하는 등 2000명의 주민들로 북적거렸다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만 해도 갯장어 가격이 ㎏에 2만3000~2만4000원을 넘는 등 감성돔(㎏에 1만500원)에 비해 훨씬 비싼데다, 일본에 전량 수출할 정도여서 뭍사람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넉넉했다는 것이다.

박 통장은 "참장어, 하모로 불리는 갯장어의 경우 우리 섬이 '원조'"라며 "갯장어 요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섬뿐이었다"고 했다. 여기에 낙지잡이에 3분의 1 이상 펼쳐진 섬 주변 갯벌에서 바지락과 굴 채취 등으로 얻은 수입도 '짭짤했다'고 한다. 육지와 가깝다보니 다른 섬 주민들처럼 자식 가르치겠다며 두집·세집 살림을 할 필요도 없었다.

오랫동안 남부럽지 않은 섬이지만 점차 변화가 생겼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도시 개발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점차 섬을 등지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고구마·콩·옥수수 등 대신, 잡초만 무성한 밭도 늘어났다.

시간이 갈수록 도시와의 '단절감'이 커가던 주민들에게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소식이 들려왔다.

전남개발공사가 이 일대 214만㎡의 부지에 3200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숙박시설(100호)과 골프장(27홀)·상업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이 현실화되면서 섬 곳곳에 경작 금지를 알리는 적색·흰색 깃발이 꽂혔다. 지난해까지 고구마·옥수수·콩 등을 심던 밭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다. 개발에 앞서 문화재 발굴 조사도 한창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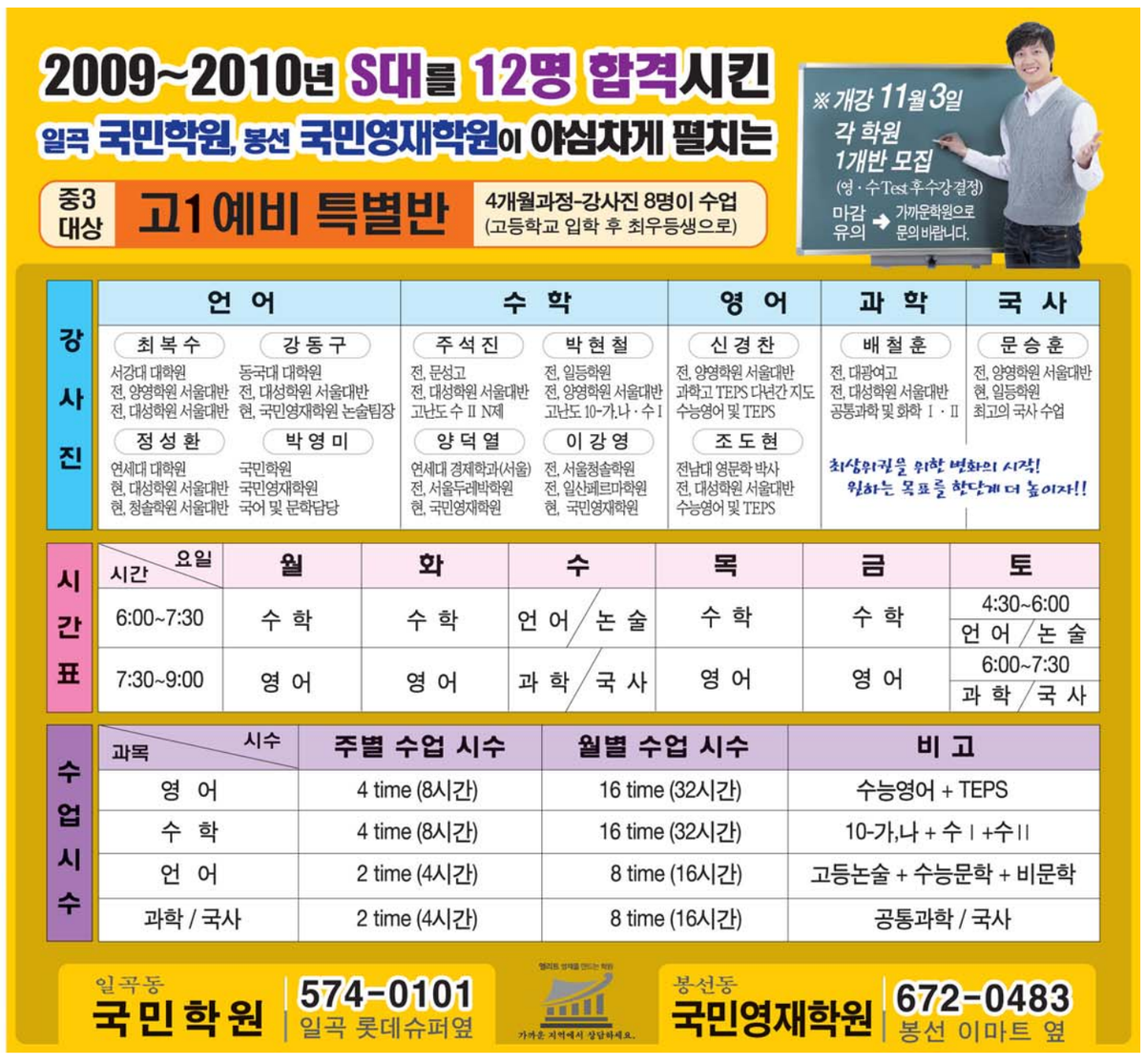
개발공사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2012년 이후 추가로 숙박시설(200호)을 건립하는 한편,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360실의 콘도·호텔을 건설한다는 구상도 세워놓았다.

개발을 바라보는 주민 시각은 두 갈래다. "예전의 넉넉하고 북적거리는 섬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조용한 섬이 외지인들 차지가 되면서 주민 소외감만 더 생기고 살기도 팍팍해질 것"이라는 불안감도 떨치질 못한다.

현지 주민들이 아닌, 도시인들 입맛에 맞는 개발로 치우칠 경우 골프장·콘도 사업자나 외지인들의 배만 불리면서 현지 주민들은 소외감만 더 커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 통장은 "천혜의 갯벌을 활용한 체험장이나 테마파크, 수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판매장 등을 갖춰 일부 외지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섬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섬이 가진 자연 그대로의 생태와 정겨움을 간직하면서 조화롭게 개발이 이뤄지는 것, 뭍으로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척박한 섬을 지키고 살아온 대경도 주민들의 바람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개발을 앞두고 섬은 문화재 발굴조사가 한창이다.〈위〉 아래는 대경도 앞바다에 조성된 해상펜션. 바다 위에 떠있는 돔형 해상펜션은 샤워실과 냉장고·TV 등을 갖춘데다, 밤에는 돌산대교 야경까지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다.